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6월 27일(목) 총 3매	
담당부서 국제교류증진과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김은진 ☎440-3241 • 담 당 자 조은정 ☎440-324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미국 버뱅크시 청소년교류, 5년 만에 재개

- 버뱅크시 청소년대표단, 황효진 정무부시장 예방 -

- 올해 12번째로, 60년 자매도시 우호 증진의 산물 -

인천광역시 최초 자매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시 청소년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했다.

인천시와 버뱅크시는 1961년 12월 18일 최초 자매도시 결연 이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청소년교류를 재개하게 됐다.

이번에 방문한 버뱅크시 고등학생들은 5명의 학생들과 2명의 인솔자로 구성됐으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했다.

대표단은 25일 아라고 수업 참여 등 청소년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케이팝(K-POP) 댄스체험, 글로벌캠퍼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방문하는 등 인천의 어제, 오늘,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인천시정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울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5년 만에 재개된 버뱅크시와의 청소년교류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하며, 버뱅크시와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60년 동안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최고가 다 인천에 있는 만큼 글로벌 도시 인천의 어제, 오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참가한 청소년대표단이 양 도시의 가교가 돼 앞으로의 미래 60년도 인천과 버뱅크시의 우호증진과 교류강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과 버뱅크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 114명의 고등학교와 대학생이 상호방문하는 청소년교류를 이어왔으며, 기념 조형물을 상호교환 등 자매도시 중 가장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버뱅크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10만 명의 세계적인 미디어 수도로서, 워너브라더스, 워너뮤직그룹, NBC 유니버설, 월트 디즈니 컴퍼니, PBS 등 수많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영화산업과 항공기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접견사진>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26일 시청 집무실에서 인천시-미국 버뱅크시 청소년 교류를 위해 인천을 방문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